권혁순 대장 3군사령관 취임

권혁순 대장은 지난 10월 11일부 3군 사령관에 부임(赴任),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방부는 10월2일자로 권혁순 중장(육사. 34기. 58) 합참군사지원 본부장을 육군대장으로 진급과 동시 3군사령관으로 발령 지난 10월 11일부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혁순(赫舜)족친은(포항. 좌윤공파. 36世) 선친(先親) 휘(諱) 덕술(德述)과 모(母) 김해김씨 슬하 7남매 막내로 태어나 포항에서 포항공고를 졸업 후 육군사관학교 34기로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하였으며 오늘에 사성(四星)장군이 되기 전까지 전후방 야전지휘관, 참모를 거쳐 수도방위사령관을 역임 후 최근 합참군사지원본부장 재직 중 발탁된 혁순 대장은 지(智) 덕(德) 용(勇)를 겸비한 무장으로써 권문(權門)에서 최고의 직위로 보임되어 이번에 영예를 주었다. 권문(權門)에서는 권정달 안동권씨대종원 총재 명의로 화환을 보내어 축하메세이지를 전하였다. 〈권범준 본원기자〉

북부화수회를 개칭, 북부종친회로

새 회장에 권창기씨 추대

북부종친회 회장대행 권영섭씨가 10월 모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북부화수회를 개칭한 북부종친회(회장 대행 권영섭)는 지난 10월 12일 오후 6시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갈비명가 李相'(길음신관)에서 서울시 도봉, 강북, 노원,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족친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가졌다.

이날 권오선씨의 사회로 시조태사공 묘소를 향한 망배에 이어 회장대행 권영섭씨(안동, 부정공파 34世·일도 철학원장)는 인사말을 통해서 오늘부터 북부화수회를 폐기하고 북부종친회로 개칭(도봉, 강북, 노원, 성북구)4개지역을 묶어 북부종친회로 하고자 하오니 족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 있기를 바라며 많은 좋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권병홍 회장(87. 추밀공파 35世)은 인사에서 우리 모두는 대동단합해 새로 바뀐 북부종친회의 활성화에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피력했다.

다음 임원 선출에 들어가 권영섭 회장 대행이 권창기씨(72, 안동, 부정공파 35世 權昌基, 광복회강북구지회고문)를 신임회장으로 추천해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 되었으며 그 외 임원은 새 회장에게 위임했다.

창기 신임회장은 신임인사에서 미약한 힘이나마 열과 성을 다해 종친회 새역사 창출에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으며 참석자 각자 소개가 있었다.

靑天 權昌基회장은 前 도봉강북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정민운동 중앙본부회장, 효실버카운티고문, 웅부통상대표, 안동월곡중학교 교사, 성균관유도회교화문화부장, 도봉구종친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애국지사 故 權正弼옹의 친손이며, 우수공무원상 수상, 치안 및 예비군 관계관 표창, 조국수호 6·25 행군대회 최우수구 표창 외 다수가 있다. 〈권오복 편집위원〉

〈1면에 이어〉

忠莊公 權慄都元帥 賜祭祀 祝文

돌이켜 보오니 우리나라 성종(成宗) 중종(中宗) 명종대(明宗代)에는 하늘이 복(福)을 내리사 명인(名人)과 제제다사(濟濟多士)가 연이어 세상(世上)에 나오시매 선생(先生)은 팔척장신(八尺長身)에 용모가 풍만하며 안색이 엄중하며 행실이 충실하시며 사치를 싫어하고 베풀기를 좋아하시며 효성(孝誠)과 우애(友愛)가 지극하시고 종족(宗族)도 돈독(敦篤)하셨습니다. 선조이십오년(宣祖二十五年)에 의주목사(義州牧使)가 되시고 이듬해 임진년(壬辰年)에 왜적 삼십만군(倭賊三十萬軍)이 침범하니 광주목사(光州牧使)를 제수 받았는데 왜군(倭軍)이 조령(鳥嶺)을 넘어 충주(忠州)를 함락하니 신립장군이 전사하고 전라충청경상의 삼도관찰사(三道觀察使)가 십만군(十萬軍)을 거느리고 진안(振安)에 진격하여 선생(先生)께 대책(對策)을 물으니 방약(方略)을 말하였으나 전라감사(全羅監司)가 듣지않자 선생(先生)은 광주(光州)로 돌아가 인근 고을에 격문을 보내어 일천오백명(一千五百名)의 군사(軍士)를 얻어 이치(梨峙)로 나아가 주둔하고 호남(湖南)과 영남(嶺南)의 요충지를 장악하니 영남의 왜적(倭賊)이 금산(錦山)의 왜적(倭賊)과 합세하여 공격해 오자 선생(先生)이 칼을 들고 앞장서서 싸우시니 여러 장수들이 선비도 이런단 말인가 하고 감격하여 사기 중천(士氣中天)하여 왜적(倭賊)을 물리치니 선생(先生)은 전라감사(全羅監司)로 승진되셨으며 발령받자마자 정병 일만명(精兵一萬名)을 거느리고 수원(水原)의 독산성에 확고한 진지(陣地)를 구축하고 기습작전을 감행하여 왜적(倭賊)을 퇴각시켰습니다. 이에 선조(宣祖)는 상방검(上方劍)을 하사하고 여러 진영(陣營)의 의병(義兵)도 모두 선생(先生)의 지휘를 받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선조이십육년(宣祖二十六年)에 독산성에서 고양(高陽)의 행주산(幸州山)으로 옮겨 진영을 구축하자 이월십이일(二月十二日) 서울장안에 있던 왜적(倭賊)이 삼만명(三萬名) 정탐병(精探兵)을 동원하여 산성(山城)을 몇겹으로 포위하자 궁사(弓士)들로 비오듯 화살을 쏘게 하고 력사(力士)들은 부녀(婦女)가 날은 돌을 던저 공격하고 변이중(邊以中)이 제작해준 사십량(四十量)의 화차포(火車砲)를 발사하니 그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홉 번 진격했다가 아홉 번 물러났던 왜적(倭賊)이 횃불을 붙이고 성채로 올라오자 선생(先生)이 상방검(上方劍)을 들고 장수들을 독려하니 군사(軍士)들이 생명을 내걸고 싸우매 왜적(倭賊)의 기세(氣勢)가 꺾였고 왜(倭)장수와 병사가 수없이 죽으니 군수품을 버리고 도망갔으며 일백삼십(一百三十)여명의 왜적(倭賊)을 참수함으로서 대첩을 거두셨습니다. 명(明)나라 황제와 장수들과 왜인(倭人)들까지 선생(先生)을 충신명장(忠臣名將)이라고 칭송하였습니다. 그후 선조삼십년(宣祖三十年)의 정유재란(丁酉再亂)시에도 직산과 울산에서 대승(大勝)하셨습니다. 행주대첩으로 서울이 회복되어 임금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으니 선생(先生)의 모사계책(謀事計策)은 어떠한 육전장수(陸戰將帥)도 비견될 수 없으며 하늘이 문신(文臣)에게 높은 명성(名聲)을 위탁한 것입니다. 오늘날 후세(後世)겨레들은 모진 고난(苦難)을 극복하고 세계(世界)에 우뚝하며 날로 번영 정진하고 있사오나 한편으로 왜(倭)의 후예들 중 침략근성 못버리고 반성(反省)없이 분쟁획책 여전하여 근심이오니 영령(英靈)께서도 어찌 분노하지 않으시오리까. 부디 높이 해와 별이 되시어 앞길을 밝혀주시고 모진 바람 벼락으로 왜놈의 간사함을 꾸짖고 요기(妖氣)를 뽑아내시어 나라를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진란팔주갑(壬辰亂八周甲)이 육십년(六十年)후이온데 내일처럼 바로 다가오는 듯 돌아가신지 어제같은 듯 기리는 마음이 그지 없사오매 정성(精誠) 다하여 공경(恭敬)히 국가제향(國家祭享)의 술잔을 올리오니 부디 깊이 살피시어 상(尙) 향(饗) 하시옵소서

贈 議政府右議政 花山府院君 諱 復

증 의정부 우의정 화산부원군 휘 복

■ 權 貞 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명의우정부왈命議于政府曰 증이유은지曾以柳殷之 동사신진응同使臣進應 금차견참의권복今差遣參議權復 칙무내이위비관호則無乃以爲卑官乎 개견양부이상하여改遣兩府以上何如 첨왈僉曰 칭사칙수참의稱事則守參議 중조대지여일中朝待之如一 무해어의無害於義 연시불난然是不難 개차위편改差爲便 수이호조참판박선생대지遂以戶曹參判朴先生代之; 의정부에 명하여 의론케 하기를 전에 유은지를 (중국)사신과 같이 (사신으로)가서 매를 바치게 하였으니 지금 참의 권복을 차출해 사신으로 보내면 관직이 낮다고 하지 않겠는가? 양부(의정부와 중추부)이상에서 고쳐 차출해 보내는 것이 어떤가. 하니 모두가 사신을 칭하면 비록 참의라 할지라도 중국 조정에서 똑같이 대우하니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 고쳐 차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므로 마침내 호조참판 박선생으로 대신하였다.

여기에서 공은 매를 포획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장동아·창성 등 중국 사신과 동반하여 중국에 가 황제에게 본국의 매를 바치는 진헌사進獻使로 발탁이 된 것이다. 이는 공이 그동안 장동아·창성 등과 직무로서 밀접했기 때문이었다. 외교적 성과를 위해 공이 참의로서 진헌사로 발탁이 되었는데 그 직위가 경대부인 2품관이 못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임금이 이를 염려해 진헌사로 경대부인 유은지를 보냈으니 이번에도 의정부와 중추부에 속한 관원 중에서 2품관 이상을 고쳐 차출해 보내는 것이 어떻냐? 고 묻게 된 것이다. 이에 의정부 대신들이 일단 사신의 명칭을 띄웠으면 중국조정에서 관직이 낮고 높음과 관계없이 대우하니 별문제는 없겠으나 고쳐 보내는 것도 어려울 것이 없으니 그렇게 하자고 하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공이 당상관 통정대부 참의로서 특례로 진헌사 정사로 발탁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공이 중국 사신들과 관계가 매우 원만하여 외교적으로 발휘한 수완이 인정되었던 관계로 볼 수 있다. 그로부터 반년쯤 후인 세종 15년 1433년 5월 13일에 공은 호조참의로서 명의 서울에 사신을 간 기록이 나온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사실이 새롭게 발굴된 것이다. 이 날자 실록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견호조참의권복여경사遣戶曹參議權復如京使 주변경奏邊警 근자파저강주야인등近者婆猪江住野人等 규합동류성군糾合同類成群 돌입본국강계여연등처突入本國江界閭延等處 노략인구우마擄掠人口牛馬 재산거흘財産去訖 기후본적등其後本賊等 빈빈견인頻頻遣人 사칭홀제온야인등사稱忽制溫野人等 욕요재래작적欲要再來作賊 여차공혁如此恐赫 규향변군規向邊郡 적계난측賊計難測 어선덕팔년사월간於宣德八年四月間 저령평안도절제사최윤덕著令平安道節製使崔允德 부령군사府令 초탐적종哨探賊種 본적등항거대적本賊等抗據對賊 역궁도찬力宮逃竄 금장포획今將捕獲 적도수내賊徒數內 증피본적로략曾被本賊擄掠 요동개원등처遼東開元等處 주좌남부공이십사명住坐男婦共二十四名 도어중도병고이명到於中途病故二名 취차통사호군송성립就差通事護軍宋成立 관압해송요동管押解送遙東 도사교할都事交割 외신절상外臣竊詳 선위차사先爲此事 이령배신김을해已令陪臣金乙亥 재경주본부경재경奏本赴京 거후去後 금거상항사리今據上項事理 이의주달理宜奏達

호조참의 권복을 시켜 경사 京師(명의 서울 북경)에 가게 하였는데(가는 중에)변방의 경보를 아뢰었으니 그 사의 이르기를 근자에 파저강(동가강 또는 만주강이라고도 하여 중국 요룡성과 안동 성경계에 있는 압록강의 지류로서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5백리를 남류하여 봉황성 동남쪽을 에들러 압록강에 합류한다)에 사는 야인(여진족) 등이 같은 부류를 규합해서는 무리를 이루어 우리나라의 강계와 여인등 처에 돌입하여 일반백성을 살해하고 사람과 미소를 노략질해 재산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 후 이 도적 등이 빈번히 사람을 보내 흘자 온 야인등임을 거짓 칭하고 다시 쳐 들어와 도둑질을 하고저 하여 이와 같이 공갈 협박하여 변방 고을을 향해 엿보니 도적의 계략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선덕(명 선종 연호)8년1433년 4월 동안에 평안도 도절제사 최윤덕 등이 명을 받아 군사를 통솔해 가서는 도적의 자취를 초탐하니 이 도적 등이 항거하여 대적하다가 힘이 다해 달아나 숨어 버렸는데 이번에 저들을 포획 해보니 도적의 무리 안에 일찍이 이 도적에게 노략을 당한 요동의 개원(요녕성 창도현 남쪽에 있던 고을) 등처의 남녀24명이 억류가주하고 있었는데 데려오는 도중에 둘은 병으로 죽고 나머지 요만자 등 22명은 통사 호군 송성립을 차출하여 요동에 책임 호송하여 풀이 죽게 하였다. 도사(요동의 중국 행정장관)와 인수인계하였는데 외신(외직에 나가있는 신하)이 가만히 헤아려 이를 먼저 배신(중국황제에 대한제후국의 신하) 김을해로 하여금 주본(황제에게 상주할 원본)을 받들고 경사에 가도록 이미 보내고 그 떠난 후에 이제 위와 같은 상항의 사리를 이치로 마땅히 주달 합니다' 하였다.

이 기록은 이번에 처음 발굴된 것이고 또한 공의 유문遺文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바와는 그 계문啓門이 공의 작문임이 확실하니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모범친목회 순례 ⑪

釜山 天燈會 隱巖 權兌鉉씨

부산 천등회 은암 권태현

오문족친간에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목적으로 항도 부산에서 지난 78년 12월10일 權世萬씨 外 16명이 천등회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중정회(中丁會)로 발족했으며 이어 87년 11월10일 화산회(花山會)회원 15여명을 영입해 천등회(天燈會)로 개칭하고 출범해 초대회장에 권세만씨(權世萬)가 선출되었다.

천등회는 창립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였다. 이어서 초대회장 세만씨는 회원 족친규합에 앞장서면서 천등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며 기반 조성에 크게 진력했다. 이어 2대 회장에 權丁鉉씨가 선임되어 천등회를 조직적으로 체계화 하는데 크게 힘썼으며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서 3대회장 五中씨, 4대회장에 成鉉씨, 5대회장에 德洙씨, 6대회장에 重元씨, 7대회장에 五寬씨, 8대회장에 容槿씨를 거쳐 제9대회장에 權兌鉉씨가 2012년 4월10일에 취임해, 회원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며 매사에 솔선수범하면서 문사창출에 거보의 길을 걷고 있다. 그간 천등회는 매년 권문 주요 유적지를 탐방했으며, 88년 낭중공 복단(復壇)에 헌성, 90년 시조태사공 묘소입구 표지석세움, 96년 운곡서원 중수헌금, 2009년 낭중공 이단시 각자 헌성 등을 하기도 했다.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는 천등회는 현재 매월 10일에 정기적으로 회원 30여명이 참석해 월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모임시 作故회원들에게 추도묵념을 올리고 있다.

한편 권태현회장(79, 경남 산청, 복야공파 35世)은 엄친 권영훈씨, 자당 손윤희여사의 4남매 중 2남으로 태어나 진주농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어 연합철강(주)에 입사해 40여년간 근속하다가 정년퇴직했으며, 부산종친회 운영위원·부회장, 代祖·世孫 定立提案, 현 대종원 종무위원, 종사연구위원, 천등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권회장의 가훈은 修身齊家, 좌우명은 溫故知新으로 자아 세계를 순수하게 추구해가고 있으며, 崇祖는 孝親의 연장이고 孝親은 사회규범의 제일로 생각하고 조상을 모시고 있다.

천등회 현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權兌鉉 ▲부회장:權聖容, 守鉉 ▲감사:權寧寅, 英鉉 ▲총무:權壬鎬

연락처:(055)545-5221

〈권오복 편집위원〉

동정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14일 서울, 부산, 대전, 전주 등 4곳에서 동시에 열리는 위아자 나눔장터에서 판매될 명사 기증품 접수에 '다기 사발 세트'를 기증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취득세,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9·10정책 이후 시장 지표가 조금씩 개선되는 등 "주택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9월 26일 중앙선대위 인선에 권영세 前사무총장을 종합상황실장으로 선정했다.

▲권영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前 국회의원)은 6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된 한국형 문화체험 숙박브랜드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 2013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안동유치를 이끈 권영세 안동시장은 대축전을 통해 경북 북부지역의 단합이 이뤄지길 희망했다.

▲권오경 한양대학교 교학부총장이 27일 서울 남산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2 공생을 위한 사회책임경영시상식'에 참석했다.

▲ 권경수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 상임이사는 6~1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에 참석했다. 현재 60여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활동하며 여성문제 해결과 가톨릭교회 발전에 힘쓰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위원장 권영빈)는 19일 대학로 아르코예술 극장에서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한국민속예술관총연합, 한국메세나협의회와 함께 예술나무 운동발족식을 개최했다.

僕射公派祖(諱 : 守洪) 秋享 案內

晩秋之節에 派親 여러분들의 家內에 豊饒와 幸福이 가득하시길 祈願합니다. 壬辰年 派祖府君(諱:守洪) 秋享을 다음과 같이 奉行하오니 公私多忙하시더라도 家族同伴하여 꼭 參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日 時 : 2012年 11月 15日(陰曆 10月 2日) 木曜日 10 : 30

場 所 : 慶北 安東市 西後面 校里 松夜壇所(松坡齋舍 뒤)

交 通 : 안동터미날에서 풍산 방향 1Km(왕손짜장 앞 하차 150m), 서안동IC→시내쪽 4K 송야교 사거리 좌회전→서후 방향 500m(좌측), 남안동IC→송현사거리→풍산 방향 4Km(왕손짜장 옆길 150m)

連絡處 : 慶北 安東市 太華洞 666-62(派宗會館) ☎(054)855-6989

派宗會長 : 010-5161-4271 總務部長 : 011-504-2083

2012年 11月 日

安東權氏僕射公派宗會長 權 啓 東